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6/15~2026/06/21]

2026.06.22

[로봇] 현대차의 BD 완전 인수 추진

- 현대차, 소프트뱅크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 완전 취득
- 현대차, 국내 밸류체인 검토와 동시에 중국에서도 로봇 부품 생산 검토
- 씨메스, 글로벌 제조업항 양산 계약 지속. 삼현은 글로벌 휴머노이드항 부품 수주

[방산] 5월 방산 수출 데이터

- UG와 한화의 유럽 방산 공급망 편입. 한국 방산의 새로운 서막
- UAE, 한국 방공 체계 관심 지속. K-9 자주포 현지 생산까지도 추진
-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 연말까지 추가 매입 계획. 연말에는 12% 보유 전망

[조선] 임박한 CPSP

- 캐나다 잠수함 막판 경쟁. 독일은 철강 조달, 한국은 LNG 조달.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회담
- 미 상원 군사위에서 비전투함 해외 건조 허용하는 방침. 트럼프 대통령의 10척 건조 요청까지
- 일본의 LNGC 건조 추진. 한국 조선업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

[항공] 7월 유류할증료 인하

-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7단계 → 19단계로 20% 이상 인하, 여객수요 추가 개선 기대
- 한진 IATA 신선회물 국제인증(CEIV Fresh) 획득, 콜드체인 물류 경쟁력 강화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시너지 연 3,000억원으로 추산

[해운] SCF 3,000 돌파

- 호르무즈 플러드 해운 운임은 후행 안정, 연료·보험료 변수. 중동물류 정상화까지는 시간 필요
- 지중해 정기항로 컨테이너선 대형화 급속도로 진행, 8,000TEU급 이상 선박 수 2배 증가
- 팬오션,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과 2조 4,711억원 장기화물운송계약 체결



Weekly Keyword

현대차의 BD 완전 인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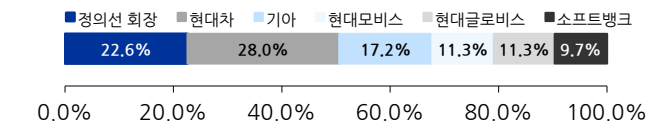
현대차가 보스턴다이내믹스 완전 인수를 추진. 본격적인 상용화 및 양산 체제 전환 추진할 것으로 전망. 하반기에도 RMAC과 생산 법인 설립 등 기대감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1)

[현대차의 BD 완전 인수 추진]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9.65%)에 대한 풋옵션 기한이 다가오면서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언론에서는 6월 22일 현대차 그룹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약 5천억원에 9.65% 지분 인수가 결정될 것이라 보도. 동시에 소프트뱅크 그룹에 RAI의 지분을 매각하는 가능성도 같이 제기되고 있음(현대차 47.5%, 기아차 28.5%, 현대모비스 19%, 보스턴 다이내믹스 5%).
- 상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완전 지배력을 확보하는 대신 강화학습 등 로봇 AI 선행 연구조직인 RAI에 대한 직접 지배력은 상실하게 됨. 이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선행 연구 조직보다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Atlas 상용화와 양산 체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 가능. RAI는 보스턴다이내믹스와 Atlas 강화학습 파이프라인 등에서 협력해온 관계인 만큼, 지분 매각 이후에도 연구 협력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외에도, 최근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국내 공급망 검토와 현대차의 중국 광저우 로봇 부품 기지 설립 추진 소식이 있었음. 올해 3분기 RMAC 및 생산 법인 설립도 진행될 예정. 계속해서 아틀라스 양산과 관련된 기대감 지속될 전망.

Key Chart: BD 지분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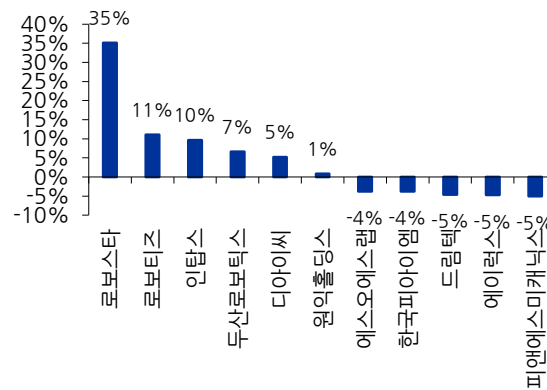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6/15~06/21)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씨메스로보틱스 23억원 규모 공급계약 공시
- 큐렉소, '큐비스-스파인' 혁신의료기술 임상수술 개시
- HD현대, 선박 건조 피지컬AI 로봇 개발 착수
- 뉴로메카, 국내 로봇 업체에 AMR 샘플 공급

[휴머노이드]

- 엔젤로보틱스, '웨어러블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

[부품/SW/기타]

-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100% 확보 추진
- 현대차, 中 광저우에 로봇부품 기지 구축 추진
- 삼성전자,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투자 가능성 검토
- 삼성, 글로벌전략협회사 AI 자율공장 청사진 공유
- 삼현, 글로벌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연속 수주
- KH바텍, 휴머노이드 로봇 감속기 시장 출시표
- 엔비알, '휴머노이드 표준 베어링' 글로벌 R&D 착수
- 금감원, 빅웨이브로보틱스 IPO 2차 제동

[글로벌]

- 美 로봇 시장,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 회복
- 美 서브 로보틱스, LA서 세탁물 자율 배송 시범사업
- 中 엔진AI, 홍콩 증시 입성하나. 비밀리 IPO 신청
- 中 알리바바, RFM '큐웬 로봇 스위트' 공개
- 中 애지봇 첫 오프라인 '휴머노이드 로봇' 매장 개업
- 日 가와사키중공업, 8축 산업용 로봇 발표
- 로봇 훈련 데이터 뒤에 '시급 4,000원' 인도 노동력
- 제네시스 AI, 바퀴형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에노' 공개



Weekly Keyword

5월 방산 수출 데이터

5월 국내 방산 수출액은 1.53억달러로 전년 대비 47% 감소. 전차, 자주포 등 주요 플랫폼들 수출 부재했던 영향. 하반기 폴란드 향 물량 점진 증가하면서 수출 흐름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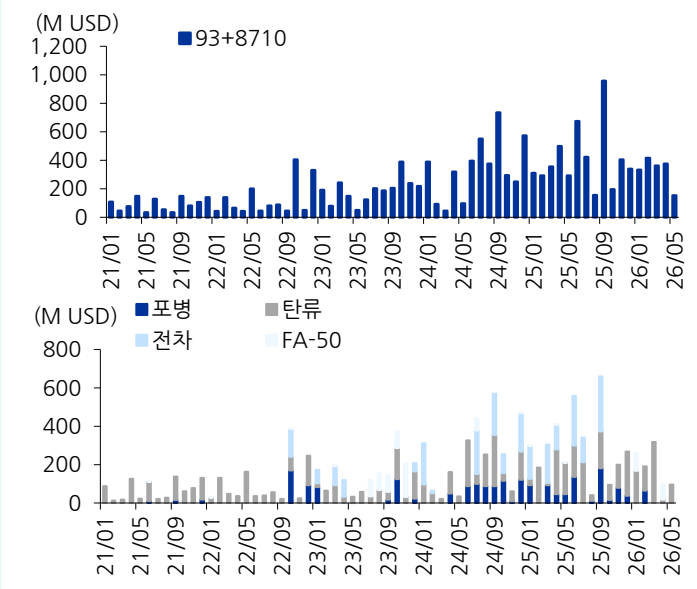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테디(79)

[5월 방산 수출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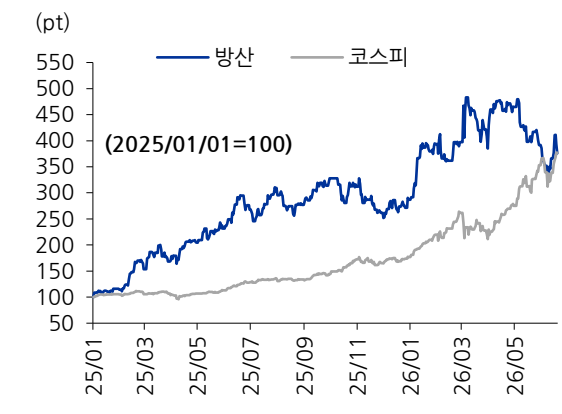
5월 방산 수출은 1.53억달러(-47% YoY, -59% MoM)로 대형 플랫폼 출하가 부재하며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임. 5월 누계 수출액도 약 16.4억달러로 전년동기 17.5억달러 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폴란드향 전차·자주포 등 주요 물량 공백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 다만 UAE 탄약 관련 물량 출하가 재개됐고, 하반기 폴란드 전차 등 납품이 본격화될 경우 수출 흐름은 개선될 여지가 높을 것.

Key Chart: 국내 방산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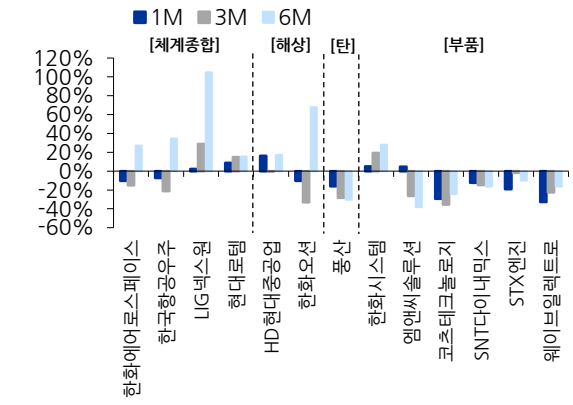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6/15~06/21)

[수주/계약]

- UAE 국영 방산 수장 "L-SAM·KM-SAM 도입 추진"
- 한화, UAE 제네레이션 5 홀딩스와 K-9 현지 생산 추진 합의

[기업별 이슈]

- 한화, 佛 발사대에 '천무 미사일' 이식
- 한화, KAI 지분 9% 확보 2대 주주 올랐다
- LIG D&A, 獨 라인메탈과 유럽 다층 방공 시스템 공략
- LIG D&A 신익현 대표 "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KF-21, 최초형식인증 획득. 비행안전성 '공식 인정'
- K2PL, 한국형 능동방어체계 'KAPS' 전격 탑재한다
- 현대로템, 독일 FFG와 폴란드 구난전차 개발·생산 협력
- 현대로템, 7,500억 모로코 철도 유지보수 수주

[기타]

- 폴리τικο "美 안보 역할 축소는 한국에 기회"

[글로벌]

- 중전 합의에도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
- 트럼프, 무기 소진에 '국방생산법' 발동
- 美 L3해리스, 미사일 자회사 Axyv 상장 추진
- 美 육군장관도 한화 언급. 자주포, 獨 제치고 승기 잡나
- 미 육군, 5.4억 달러 규모 M109A7 추가 주문
- 라인메탈, 일본에 생산 거점 구축 검토
- 독일과 스페인이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계속
- 프랑스 "UAE와 라팔 개량 사업 협력 방안 논의"
- 프랑스, 다연장로켓 MBDA-Safran 컨소시엄 선정
- 말레이시아, KNDS 세자르 자주포 18대 구매



Weekly Keyword

임박한 CPSP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CPSP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사업. 분할 발주가 되더라도 잠수함 시장 레퍼런스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9)

[임박한 CP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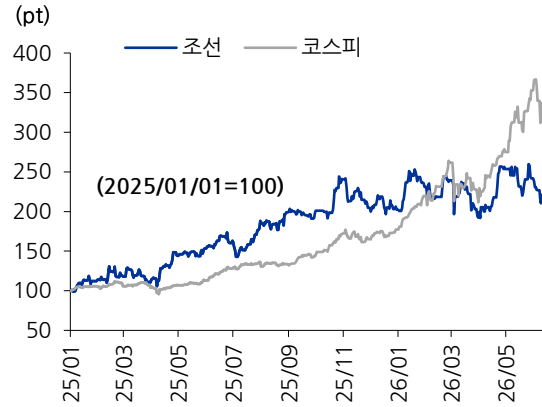
- 캐나다가 시한으로 제시한 6월 말(지난 주에는 30일 이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이 다가오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향방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지난 주,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실시. 귀국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두고 "상당히 기대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코멘트.
- 수주 가능성 예측은 불가하나, 어느 한 쪽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 아님. 한국은 과거 호주 레드백 사업의 수주 경험을 토대로, 강력한 ITB(절충 교역)와 현지 산업 부흥 및 고용 효과를 부각시키며 캐나다 내 민심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이 12척을 전량 수주할 경우, 이는 국내 잠수함 산업이 기존 유럽 중심의 재래식 잠수함 수출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될 전망. 특히 선진국/NATO을 대상으로 첫 레퍼런스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후속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가능성은 낮지만 분할 발주가 현실화 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큼. 수출 시장 후발주자인 한국은 레퍼런스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 일부 물량만 확보해도 향후 추가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함.

Key Chart: G7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와 독일과 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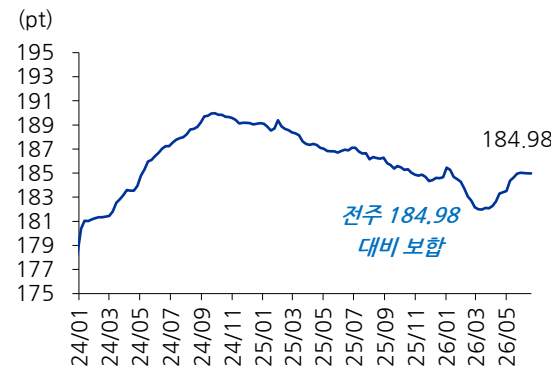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6/15~06/21)

[상선/해양]

- HD현대중, 그리스 선사서 MR탱커 2척 건조 '낙점'
- HD현대마린엔진 중국 \$18.5m 선박엔진 수주

[특수선]

- 트럼프 "미국군함 10척 빨리 건조 가능한가"
- 李, 加잠수함 "상당히 기대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아"
- 이재명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양자회담
- 온타리오 조선소 대표단, 거제조선소 방문
- 한화오션, 加 캐나다 LNG 프로젝트의 전략적 협력
- 안규백 "원잠 국내건조 美와 합의까진 안 돼"
- 미 상원 군사위 "한국 핵잠 협력 지지"

[기타]

- 한화오션, 환해지 전략 수정. 해지비율 70% 이상으로
- HD현대, 로봇-데이터 기반 '선체 관리 통합 솔루션' 개발
- HD현대, 타밀나두 주지사사와 회동. 조선소 건립 논의
- 에스엔시스 "美 콘라드 조선소, 부산 에코센터 방문"

[글로벌]

- 미국 의회,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 해외 건조 허용
- 美상원, 대통령 해외건조 예외 승인권 제한
- mwb 리서치, TKMS 승리 확률 70%로 예상
- TKMS, Valbruna ASW 비자성 잠수함용 강재 주문
- 벤처글로벌, CP2 확장 사업 FERC 승인 추진
- 中, 세계 첫 27만1000m³급 LNG 운반선 건조
- 클락슨, 호르무즈 해협 재개시 수백 척의 VLCC 필요
- 일본, 韓 도움 받아 LNG선 건조 재개한다



Weekly Keyword

7월 유류할증료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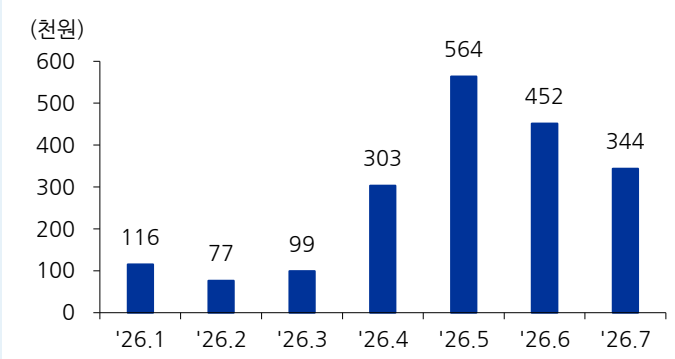
6월에 이어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됨에 따라 성수기 여객 수요는 견조할 전망이다. 다만 항공유 가격과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FSC와 LCC 간 수익성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9)

[7월 유류할증료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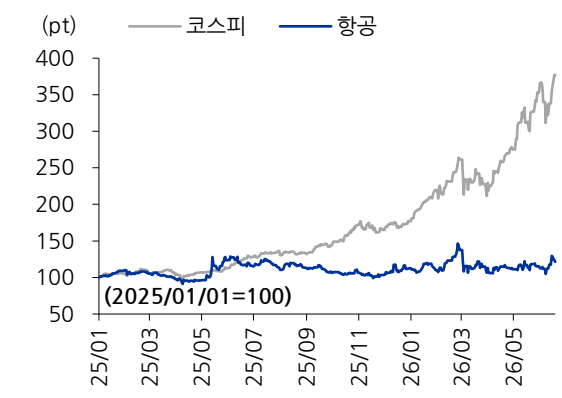
-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7단계에서 19단계로 인하. 국제유가 하락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이 338.3센트/갤런으로 전월 대비 -17.5% 하락한 영향. 항공권 총액 부담이 낮아지며 국제선 여객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인하가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반영되는 점도 항공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다만 비용 부담이 해소된 것은 아님. 6/21 기준 항공유 가격은 113달러/배럴로 전쟁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고회율 환경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FSC와 LCC 간 수익성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견조한 화물 업황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효과를 감안할 때, 수요 증가 국면에서 대한항공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

Key Chart: 대한항공 인천-미국 편도 국제선 유류할증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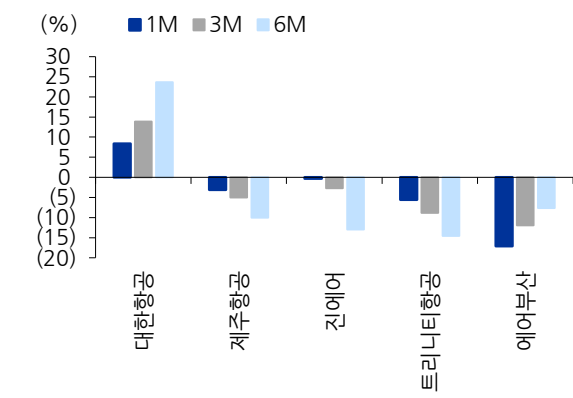


자료: 대한항공,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6/15~06/21)

[여객/화물]

-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7 → 19단계, 여객수요 개선 기대
- 유가 하락에도 항공사 연료비 절감 효과 체감까지 시간 필요

[기업별 이슈]

- 한진, 신선화물 항공운송 국제표준인증(CEV Fresh) 획득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시너지 '연 3,000억원'으로 추산
- 대한항공, 넥스트라이즈 2026에서 AI 미래 항공기술 공개
- 아시아나, 1,000억원 규모 에어부산 전환사채 주식 전환
- 아시아나, 부품 수급 지연으로 7월부터 하와이 노선 비운항
- 트리니티항공 5대1 주식병합 추진, 1,100억원 영구채 발행
- 트리니티항공,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일부 감편
- 제주항공 단거리 수요 증가로 5월 110만명 수송, LCC 1위
- 진에어, 8월부터 인천-엔타이 노선 정기편 주 7회 운항 재개
- 진에어 기체는 가볍게 수익성은 높게, 연료 효율화 속도
- 에어프레미아, 9월부터 인천-LA 노선 일부 감편 예정

[기타]

- 우주청, 2030년까지 429억원 투입해 항공기 엔진 자립 시동

[글로벌]

- 베트남항공,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기 운항률 3위 등극
- 일본항공 화물부문, B767 화물기 정비로 7월 인천노선 조정



Weekly Keyword

SCFI 3,000 돌파

SCFI는 8주 연속 상승하며 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완전히 재개되더라도 전쟁보험료, 선박 재배치 시차를 고려할 때 높은 해상 운임 레벨은 유지될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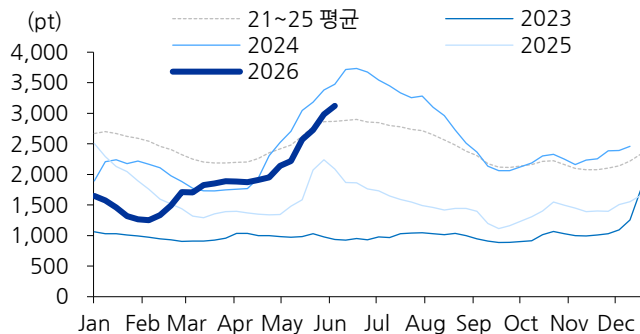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2)

[SCFI 3,000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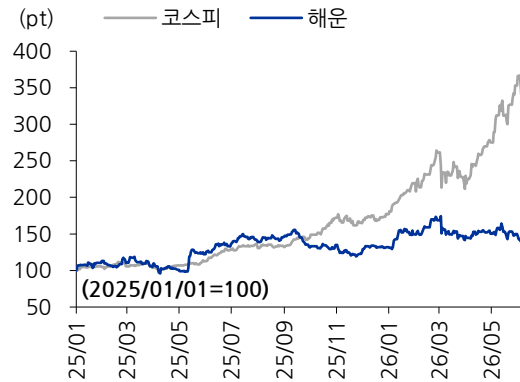
-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 회복 가능성이 확대됨. 그럼에도 6/19 기준 SCFI는 3,121pt를 기록하며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 컨테이너 시장은 단기 지정학 이벤트보다 선박 수급, 항만 혼잡도, 성수기 물동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 이번 SCFI 상승은 예상보다 강한 컨테이너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국제유가와 벙커유 가격의 상승 압력은 낮아졌지만, 해상 운임에는 연료비 뿐 아니라 전쟁위험보험료, 위험 할증료, 선박 재배치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시차를 두고 반영됨.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수에즈 운하까지 통항이 재개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 따라서 올해 성수기까지는 희망봉 우회가 지속되며 높은 컨테이너 운임 레벨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

Key Chart: SCFI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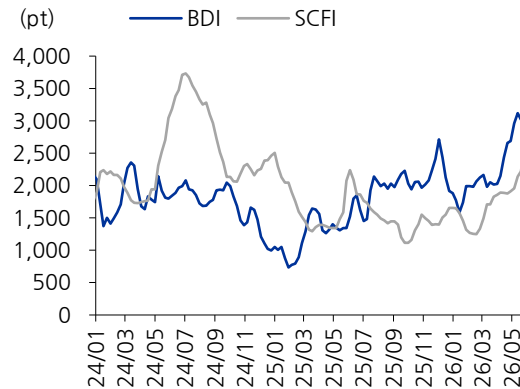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6/15~06/21)

[벌크선]

- 2026년 1~5월 중고 벌크선 거래 378척으로 +21%yoy 증가

[탱커/가스선]

- 2026년 들어 탱커 신조발주량 444척으로 +358%yoy 증가
- 1H26 VLCC 신조발주 120척 이상, 역대 최고 연간 발주 상회
- 팬오션, 한화오션에 8,000억원 규모 VLCC 5척 신조 발주
- 팬오션, 2조 4,711억원 규모 장기 원유운송계약 체결
- SK해운 벙커링선 2척, 소형 제품운반선 2척 잇달아 매각
- EU, 지중해 수역에서도 러시아 그림자 선단 차단 작전 돌입

[컨테이너선]

- '휴전'에 중동 해운 운임 하락했지만 SCFI는 3,000선 돌파
- 미국 13개 항만 4월 수입 컨테이너 처리량 -3.6%yoy 감소
- 지중해 정기항로 컨선 대형화, 8,000TEU급 이상 선박 수 2배
- Emarat Maritime, 中 조선소에 피더 컨테이너선 3척 발주
- 북미항로 비동맹선사 선박 점유율 15%, 코로나 이후 최저
- HMM, "아시아 역내항로 시장점유율 3배 성장에 인니가 첨병"
- HMM, 성수기 앞두고 7월부터 미주 노선 운임 인상 단행

[기대]

- 호르무즈 풀려도 해상 운임은 후행 안정, 연료·보험료 변수
- 해운 중동물류 정상화까지 40일, 단기간 정상화도 어려워
- 쿠웨이트, 이라크 항만에서 입항하는 외국선박 입항허가 중단
- HMM '브레이브벌크 유럽 2026' 참가, 특수화물 영업 확대